

아날과 구조주의: 뒤시앙 페브르와 롤랑 바르트의 관계를 중심으로

高

原 *

I. 머리말

II. 문학의 사회사

III. 역사학과 문학비평

IV. 문학사회사와 문학사회학

V. 구조주의의 전개

VI. 맺음말

I. 머리말

아날의 역사학과 구조주의는 20세기 프랑스 인문학의 흐름을 대표하는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다. 아날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세기의 전통적 역사학을 비판하며 등장했다.¹⁾ 아날의 역사가들은 다양한 인접 학문들과의 교류를 통해 역사학의 대상을 확대하고 새로운 방법론들을 도입하면서 근대 역사학의 혁신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들은 정치사 중심의 전통적 역사학을 넘어서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 망탈리테사 등의 새로운 영역으로 역사학의 영토를 확장시켰다. 20세기 중반 이후 아날이 프랑스 역사학의 주류로 군림하고 있을 때, 구조

*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강사.

1) '아날'이라는 명칭은 뒤시앙 페브르와 마르크 블로크가 1929년 창간한 잡지의 이름에서 연유한다. 창간 당시 잡지의 제목은 *Annales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이었다. 이 제목은 1939년 *Annales d'histoire sociale*, 1946년 *Annales, Economies, Sociétés, Civilisations*, 1994년 *Annales, Histoire, Sciences sociales* 등으로 바뀐다. 본 논문에서는 모두 『아날』(*Annales E.S.C.*)로 통칭한다.

주의는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철학, 인류학, 언어학, 사회학, 문학, 지리학, 정신분석학,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거의 모든 학문들이 구조주의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었다.

당시 거의 모든 학문들이 구조주의의 물결에 휩싸였을 때 이들과 역사학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 아날과 구조주의의 관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날을 대표하는 역사가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이 1958년에 발표한 「역사학과 사회과학들: 장기지속」이라는 논문이다.²⁾ 이 글에서 브로델은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구조주의 인류학이 '시간'이라는 핵심적인 요소를 배제한 채로 정태적이고 폐쇄적인 사회구조를 설정한다고 격렬하게 비판한다. 브로델의 비판은 역사학과 구조주의의 갈등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수아 도스(François Dosse)와 같은 사학사자들은 역사학과 구조주의의 적대적인 관계가 1960년대까지 계속되다가 1970년대에 들어 브로델의 '후계자들'이 역사인류학을 통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를 수용하면서 상호 우호적인 관계로 변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³⁾

그렇지만 1970년대 이전 아날의 역사학과 구조주의는 정말로 적대적인 관계였을까? 선형적으로 우리는 아날의 역사학이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고립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브로델은 적대적 관계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항상 “역사학자라면 [...] 인간과학의 일반적인 동

2) Fernand Braudel, "Histoire et sciences sociales: La Longue durée", *Annales E.S.C.*, vol. 4 (Paris, Octobre-Décembre 1958), pp.725-753.

3) François Dosse, *L'histoire en miettes: Des Annales à la nouvelle histoire* (Paris, La Découverte, 1987), 김보래 옮김, 『조각난 역사』(서울, 푸른역사, 1998)를 참조. 아날의 역사가들에 관한 도스의 전반적인 설명은 이론적인 면보다는 권력관계에 치우쳐있다. 한편, 여기서 브로델의 '후계자'라는 말은 이론적 측면보다는 제도적 측면을 의미한다. 역사인식이나 방법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역사인류학을 도입한 제3세대 아날 역사가들의 대부분은 브로델이 아닌 에르네스트 라브루스(Ernest Labrousse)의 제자들이었다. 브로델과 제3세대 아날 역사가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원,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브로델』 『프랑스사 연구』 11호(서울, 한국프랑스사학회, 2004, 8)를 참조.

향에, 그 압력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학문들은 서로를 감염시키며 역사학 또한 이 전염증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었다.⁴⁾ 특히 아날이 처음 탄생할 때부터 그들의 주요 모토가 다양한 인접 학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심증은 더욱 확실해 진다.

물론 브로델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비판적인 모습은 브로델의 말년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⁵⁾ 초기 레비-스트로스 역시 『야생의 사고』 마지막 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역사’, 그 자체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⁶⁾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이 프랑스 구조주의의 흐름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레비-스트로스가 구조주의의 대표자 가운데 한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조주의 내부에는 다양한 사상과 흐름들이 존재한다.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에 비판적이라 해서 구조주의 전체에 적대적이라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이다. 구조주의의 내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보다 풍부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구조주의의 대표자 중 한 명이었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아날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브로델은 푸코의 열렬한 후원자였으며, 푸코 역시 자신의 이론과 아날의 친화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푸코는 아날의 창시자인 루시앙 페브르(Lucien Febvre)의 “진정한 후계자”로 간주되곤 했다.⁷⁾ 여기서 우리는 구조주의를 이끈 푸코가 페브르의 후계자로 불

4) Fernand Braudel, “Histoire et sociologie”(1958) dans *Ecrits sur l'histoire* (Paris, Champ/Flammarion, 1969), p.99.

5) Fernand Braudel, “En guise de conclusion”(1978) dans *Histoire au quotidien* (Paris, Editions de Fallois, 2001), p.240을 참조.

6) Claude Lévi-Strauss, *La Pensée sauvage* (Paris, Plon, 1962). 이 책의 9장 Histoire et dialectique를 참조. 하지만 레비-스트로스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고 역사학적 방법론을 수용한다. Claude Lévi-Strauss, *L'Homme nu* (Paris, Plon, 1971)을 참조.

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페브르는 아날의 역사가들 가운데 구조주의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인물이었다. 우리는 흔히 구조주의의 전성기를 가져온 주역으로 레비-스트로스, 푸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자크 라캉(Jacques Lacan), 이 네 명을 꼽는데, 이 중 레비-스트로스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모두 페브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푸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페브르의 후계자로 간주되었다. 1930년대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정신분석학자 라캉을 인정하고 그를 모든 비판들로부터 옹호했던 인물이 바로 페브르였다.⁸⁾ 문학비평가 바르트의 경우는 페브르와 이론적으로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바르트의 문학비평과 페브르의 역사학 사이의 이론적 연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날과 구조주의의 관계를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페브르가 문학사회사를 매개로 바르트의 구조주의 문학비평에 끼친 영향을 추적하면서 이를 통해 아날의 역사학과 구조주의가 맺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

7) Fernand Braudel, "Discussion", *Riview I* (New York, 3/4, 1978), p.256. 또한 푸코의 첫 저서인 『광기의 역사』가 출간되었을 때, 롤랑 바르트는 "만일 페브르가 이 책을 읽었다면 아주 좋아했을 것"이라 평한 바 있다. Roland Barthes, *Essais critiques* (Paris, Points-Seuil, 1964), p.168. 푸코와 아날 역사가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원, 「푸코와 브로델: 교차점과 쟁점」 『역사와 문화』 9호 (서울, 문화사학회, 2004, 12)를 참조.

8) 라캉은 1937년 페브르가 편집한 『프랑스 백과사전』의 제8권 심성적 삶에서 〈가족〉 항목을 집필한다. 페브르는 심리학자 앙리 왈롱을 통해 라캉을 소개받았다. 당시까지 무명이던 라캉이 프랑스 정부의 주도로 시행되던 백과사전 편찬 사업에 글을 기고할 수 있었던 것은 페브르의 적극적인 후원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라캉 특유의 난해한 이론과 문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페브르가 직접 나서 프랑스 교육부를 설득하고 모든 비판들을 막아주었다. 결국 교육부는 수정을 조건으로 라캉의 원고를 승인했고, 라캉은 "자신의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충분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원고를 수정한다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편집 단계에서 라캉의 원고를 수정한 사람은 페브르였다. 이 과정은 『프랑스 백과사전』의 역사를 편집하기 위한 노트들'이라는 페브르의 비망록에 묘사되어 있다. 1937년 2월 5일에 작성된 페브르의 비망록은 *Genèses* 13 (Paris, septembre 1993)에 실려 있다.

II. 문학의 사회사

페브르와 바르트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아날의 작업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기도 하다. 역사학과 문학이라는 서로 상이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 두 인물의 이론적 관계는 역사학의 역할과 가능성이 얼마만큼이나 확장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프랑스 인문학계에서 역사학과 문학의 만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그 선구자로 귀스타프 랑송(Gustave Lanson)을 들 수 있다. 랑송은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였지만, 아날의 지적 스승 가운데 한명인 철학자 앙리 베르(Henri Berr)가 1900년에 창간하였으며 이후 『아날』지의 모태가 된 잡지 『역사 종합평론』에 활발하게 참여한 인물이었다. 그는 문학 연구에 있어 역사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위대한 작품이나 작가 위주가 아닌 작품과 독자와의 관계, 그리고 문학의 생산 조건과 유통과정에 주목할 것을 주장하였다. 1903년 랑송은 “역사학과 문학의 보다 긴밀한 소통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해” 하나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에서 그는 “책이란 독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누가 읽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읽었는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질문”이라고 쓰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문학 연구에 역사학적 방법론을 도입하는 것”이다.⁹⁾ 그렇지만 랑송의 주장은 당시 문학연구자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곧 잊혀져 버렸다.

역사학과 문학의 대화를 다시 한번 시도한 것은 역사학자 페브르였다. 1941년 페브르는 다니엘 모르네(Daniel Mornet)의 저서, 『고전 문학의 역사, 1600~1700』에 대한 서평에서 랑송을 언급한다. 모르네는 랑송의 제자였지만, 그의 저

9) Gustave Lanson, “Programme d'études sur l'histoire provinciale de la vie littéraire en France”(1903) dans *Essai de Méthode et d'histoire littéraire* (Paris, Hachette, 1965), pp.81~83.

서에는 스승이 제기했던 문제의식이 들어있지 않았다. 모르네의 연구는 글자 그대로 “순수한 문학 자체의 역사”일 뿐이었다. “우리는 이 책에서 고전 시대 프랑스 사상의 일반사가 아니라 고전 문학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 여러 역사들 가운데에서 (순수한) 문학의 역사를 분리시킬 수 있다”고 모르네는 이야기한다.¹⁰⁾ 페브르는 서평에서 모르네의 시각을 우려하면서 랑송의 연구 계획을 회고한다. 순수한 문학 자체의 역사란 존재할 수 있을까?

어느 한 시대 문학의 역사를 기술하려면 반드시 환경을 재구성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 썼으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읽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혹은 작가들, 더 나아가 독자들에게 어떤 (글쓰기의) 형식이 받아들여졌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가들의 습관, 선호, 글쓰기 방식, 성공에 대한 열망의 변화들을 그 시대 정치의 변천, 종교적 망탈리테의 진화, 사회적 삶의 진화, 예술 양식과 취향의 변화... 등에 연결시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¹¹⁾

1942년 페브르는 16세기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 라블레(François Rabelais)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이 주장한 문학의 사회사를 구현한다. 라블레는 프랑스 인문학자들의 단골 연구 주제였다. 특히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비신앙적인 모습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라블레는 무신론자였는가? 페브르는 『16세기 무신앙의 문제, 라블레의 종교』에서 16세기 무신앙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먼저 라블레와 동시대인들의 증언과 시대적 배경을 검토한다. 당시 라블레는 무신론자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16세기의 시대 상황에서 ‘무신론자’라는 말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일종의 욕설에 불과했다. 따라서 페브르는 오늘날의 의미에서 무신론자라는 단

10) Daniel Mornet, *Histoire de la littérature classique, 1600-1700: ses caractères véritables et ses aspects inconnus* (Paris, Armand Colin, 1940), Lucien Febvre, “Littérature et vie sociale. De Lanson à Mornet. Un renoncement?” (1941), *Combats pour l'histoire* (Paris, Armand Colin, 1953), p.263에서 재인용.

11) Lucien Febvre, 같은 논문, p.264.

어를 라블레에게 곧이곧대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지적한다. 시대 환경에 대한 고찰 없이 라블레의 작품만 가지고 그를 합리주의자, 자유사상가로 보는 것은 20세기의 관점으로 16세기의 작가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당시의 다른 종교개혁가들에 비교하면 라블레는 온건한 편이었다고 페브르는 이야기한다.

페브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16세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라블레가 무신론자가 될 수 있었을까”를 질문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페브르는 16세기의 심성적 도구들(outillages mentals)을 분석한다.

각각의 문명은 자기의 심성적 도구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동일한 문명의 각 시대마다, 기술적이건 과학적이건 문명 자체를 특징짓는 각각의 진보마다 - 어떠한 용도에서는 조금 더 발달되고 어떠한 용도에서는 조금 덜 발달된, 새로워진 도구가 있다. 이 문명과 이 시대가 다음에 오는 문명의 시대에 온전하게 전달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심성적 도구; 그것은 손상, 역류, 중대한 변형 등을 겪을 수도 있다. 또는 정반대로, 진보, 풍요화, 새로운 복잡화 등을. 그것은 그것을 만들 줄 알았던 문명에게 유효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시대에 유효하다; 그것은 영원히 유효하지도 않으며, 온 인류에게 유효한 것도 아니다.¹²⁾

라블레가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대신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로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심성적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16세기의 라블레는 이러한 심성적 도구를 가지고 있었을까?

페브르에 따르면 16세기의 심성적 도구들 - 철학, 과학, 수학, 문학 등은 17세기 데카르트와 더불어 뒤늦게 등장하게 될 논리적 사고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당시 사람들의 사상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휘의 부족, 구문의 한계로 인하여 견고성이나 명증성을 가질 수 없었다. 16세기에는 수학적

12) Lucien Febvre, *Le problème de l'incroyance au XVI^e siècle. La religion de Rabelais* (Paris, Albin Michel, 1942), 김용중 옮김, 『16세기 무신앙의 문제-라블레의 종교』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p.199.

논증 방식의 엄격함, 계산 방식의 정확성, 증명 방식의 우아함 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조건은 무신론의 토대가 되는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철학의 등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종교는 개인과 집단생활의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었으며, 비종교적인 사고가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라블레는 16세기의 뛰어난 지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 페브르의 결론이었다. 자신의 시대를 넘 어설 수 있는 토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개인 은 자기 시대와 사회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는 페브르의 역사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¹³⁾

페브르의 연구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그다지 좋은 평을 얻지 못했다. 심지어 아날 내부에서도 혹평이 제기되었는데, 아날의 지적 스승이었던 베르나 절친한 동료인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까지도 페브르가 “지적 엘리트의 창조적인 역할을 부정했다”고 지적하였다.¹⁴⁾ 하지만 그의 연구는 약 20년 후 다른 방향에서 반향을 가져온다. 한편으로는 푸코가 한 시대의 에피스테메(épistémè)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페브르의 작업을 계승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르트가 자신의 문학비평 이론에 페브르의 문학 사회사 연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III. 역사학과 문학비평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바르트는 열렬한 사르트르주의자였다. 그가 구조주의에 입문하는 것은 리투아니아 태생의 언어학자이며 프랑스 구조주의의 선구자가운데 한 명인 알지르다스-쥘리앙 그레마스(Algirdas-Julien Greimas)와의 만남

13) Lucien Febvre, “Une vue d'ensemble. Histoire et psychologie”(1938), *Combats pour l'histoire*, p.211.

14) 페브르의 저서에 대한 여러 비판은 김웅중, 『아날학파』(서울, 민음사, 1991), pp.57~59를 참조.

을 통해서이다. 그레마스는 바르트에게 소쉬르의 언어학을 소개시켜주었고 그를 확고한 구조주의자로 이끌었다.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와는 달리 그레마스나 바르트는 역사학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하지 않았다. 바르트는 구조주의 언어학을 알기 전부터 프랑스 혁명기의 역사가 쥘 미슐레(Jules Michelet)에 대한 글을 써왔고, 그레마스와 마찬가지로 아날의 작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¹⁵⁾ 무엇보다 이들은 역사학과의 대화를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그레마스와 바르트가 동일한 의도에서 이 대화를 시도했던 것은 아니다. 그레마스는 1958년 『아날』지에 「역사학과 언어학」이라는 논문을 기고한다. 이 논문에서 그레마스는 훗날 푸코, 레진 로뱅(Regine Robin), 미셸 페슈(Michel Pécheux), 프랑수아즈 가데(Françoise Gadet) 등이 작업하게 될 언어학적 기반을 가지는 역사적 담론분석 프로그램의 원형을 최초로 제시한다.¹⁶⁾

언어학은 사회학적 태도와 어구에 대한 설명을 사실들의 원자주의와 연구자들의 심리주의에 대립시킨다. 언어는 기호들의 전체적 체계이며, 그것은 문화에 스며들고 문화로 하여금 표현되도록 한다. 언어는 단어들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자체가 상징적 체계로서 역사가 펼쳐지는 장소이다. 그것은 독자적인 사회적 공간을 형성하여, 개인들 저편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느낌과 행동의 양식을 강요한다. 구조화된 전체 속에서 조직된 단어들, 어휘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되며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언어의 지평을 형성한다. 이러한 언어의 지평 속에서 역사학자들은 심성의 구조와 집단적 감성의

15) 미슐레는 아날 역사가들의 지적 스승으로 일컬어진다. 바르트의 미슐레 연구는 Roland Barthes, *Michelet par lui-même* (Paris, Seuil, 1954)를 참조. 이 책의 초고를 읽은 그레마스가 소쉬르의 방법론을 연구에 적용할 것을 권유했고, 이를 계기로 바르트는 소쉬르의 언어학에 입문하게 된다.

16) 역사적 담론분석의 사학사적 배경과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서는 Regine Robin, *Histoire et linguistique*(Paris, Armand Colin, 1973)을 참조. 담론분석은 1980년대 영국의 역사가 가레스 스테드만 존스(Gareth Stedman Jones)에 의해 사회사의 주요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는다. 그는 차티즘의 정치언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의 초점을 언어의 물질성에 집중함으로써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역사서술에 내재하고 있는 관념론적 역사철학을 극복하고자 한다. Gareth Stedman Jones, *Languages of Class: Studies in English Working Class History 1832-1982*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를 참조.

모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의 수준에서 사회적 역할이 나뉘지고 감정의 모형과 심성의 규칙에 맞는 사회적 틀이 발생한다. 따라서 언어학은 전통적인 역사에 대한 표상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 문화사를 서술하기 위한 통합되고 잘 짜여진 계획과 함께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¹⁷⁾

다시 말해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개인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자체로 분석되어야 할 구체적 대상이라는 것이 그레마스의 주장이었다. 언어학자인 그레마스의 1958년 논문이 역사 연구에 소쉬르의 언어학적 방법론을 권유하는 것이었다면, 1960년 바르트가 『아날』지에 기고한 「역사와 문학: 라신에 관하여」는 그러한 방법론의 단초가 이미 아날의 역사학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논문이었다.¹⁸⁾ 이 글에서 바르트는 페브르의 문학사회사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학비평 이론을 제시한다. 아날의 역사가들이 위대한 영웅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통적인 역사학을 거부한 것처럼, 바르트 역시 위대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고전적인 문학비평을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프랑스 문학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문학비평가들은 작가 개인에 관한 세밀한 문헌조사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작가에 대한 자료와 기록이 그 자체로써 작품이 담고 있는 자연스럽고 자명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당연시하는 실증주의적인 관점을 조장하고 있었다. 이처럼 조잡한 반영이론에 기초하는 고전적인 방법론 대신에 바르트는 페브르가 제기한 문학사회사의 연구 프로그램을 문학비평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바르트는 “페브르의 프로그램이 기존 문학의 역사와는 정반대되는 역사로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¹⁹⁾

17) Algirdas-Julien Greimas, “Histoire et linguistique”, *Annales E.S.C.*, vol.13(Paris, 1958), p.112.

18) Roland Barthes, “Histoire et littérature: à propos de Racine”, *Annales E.S.C.*, vol.15 (Paris, 1960). 이 논문은 Roland Barthes, *Sur Racine*(Paris, Seuil, 1963), pp. 147~167에 “Histoire ou littérature?”라는 제목으로 재수록된다. 본 글에서 바르트의 논문 인용 면수는 위 책에 의거한다.

19) Roland Barthes, 같은 책, p.156.

바르트는 페브르가 제시한 문학사회사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들을 지적한다. 우선 문학 작품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연구이다. 물론 기존의 문학비평가들이 작가의 주변 환경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했던 환경이란 작가와 연관된 아주 협소한 인적 집단의 구성원들, 즉 부모·가족·친구 등이며, 누구누구와의 교제 혹은 불화에 대한 일회적인 역사에 관심을 가질 뿐이었다. 바르트가 말하는 환경은 페브르가 『16세기 무신앙의 문제』에서 라블레를 이해하기 위해 고찰했던 바로 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바르트의 환경이란 “동일하거나 보완적인 기능에 의해 현실적으로 연합한 어느 인적 집단의 사고 습관, 암묵적인 금기, ‘자연적’ 가치들, 물질적 이해의 장소”이다.²⁰⁾ 문학사회사 프로그램의 두 번째 핵심은 작품을 소비하는 독자에 대한 연구이다. 예컨대 라신의 경우, 어떤 사람들이 그의 연극을 보러 갔는가? 이들에게 궁정이니 파리니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관객의 눈에 비친 연극의 기능은? 오락? 몽상? 동일화? 거리감? 속물주의? 그리고 라신의 연극을 보며 눈물을 흘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등등의 문제가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독자의 지적 수준에 대한 연구이다. 물론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미진한 편이어서 이 단편적인 연구들만을 가지고 문학비평가가 한시대의 정신적 체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 시대 교육 체계의 깊이라든가, 독자와 일반적인 교육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는 작업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은 대중들의 사고방식의 실태들에 대한 연구이다. 라신의 전문가들 가운데 몇몇은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 포미에(Jean Pommier)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라신적 신화’의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신의 시대인 17세기 상상의 역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17세기의 취미와 관습에 대해 주의를 요구한 연구자들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점들이 페브르의 연구 프로그램의 핵심이지만, 그 이외에도 문학비평가들이 탐구해야 할 여러 주제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로서

20) Roland Barthes, 같은 책, p.150.

바르트는 고전주의 수사학에 대한 연구를 꼽는다. 이른바 문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학에서 아날이 보여준 성과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하면서 바르트가 제안하는 새로운 문학비평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강조한다. 우선 비평가의 적극적인 활동이다. 단순히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가설에 적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 시대가 제기하는 질문들에 작품을 회부해야 한다. 다른 한 가지는, 문학비평 속에서 작가라는 개인을 과감히 포기하고 작품을 둘러싼 집단의 사고방식과 제도, 관습, 규칙들, 기법들의 수준으로 이행해야 한다. 바르트가 강조한 이 두 가지 사항은 모두 페브르의 작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사항은 페브르가 항상 강조했던 “문제사”(histoire-problème)의 문제설정을 의미한다.²¹⁾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문학의 역사관 페브르가 제시했던 망탈리테사의 한 분야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IV. 문학사회사와 문학사회학

페브르의 문학사회사를 문학비평의 영역에 도입하려는 바르트의 시도가 가지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각을 좀 더 넓혀 당시 프랑스 문학비평계의 이론적 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프랑스 문학비평계의 주류는 소르본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적인 문학이론가들이었다. 그렇지만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고전적인 문학비평에 대한 비판적인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른바 ‘신비평’(la nouvelle critique)이라 불리는 새로운 문학비평 운동의 선두에는 게오르그 루카치(Georg Lukacs)의 ‘휴머니즘

21) 페브르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그것은 모든 역사학의 시작이요 끝이다. 문제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 단지 이야기, 편집물이 있을 뿐이다.” Lucien Febvre, “Vivre l'histoire”, *Combats pour l'histoire*, p.22.

적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는 문학사회학이 있었다. 루시앙 골드만(Lucien Goldmann)의 『숨은 신』이 1955년에, 그리고 로베르 에스카르피(Robert Escarpit)의 『문학의 사회학』이 1958년에 출간된다. 고전적인 문학이론이 문학을 개인적인 생산물이라고 보았던 반면, 문학사회학은 문학을 구조라는 형식의 측면에서 역사적 상황과 관련시키고 문학작품을 사회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려 했다. 작가라는 개인을 넘어 사회전체 속에서 작품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문학사회학과 문학사회사가 공유하는 문제설정이지만, 이들이 갈라지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문학사회학이 문학과 '역사'(Histoire)의 동질성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문학이 역사를 반영한다는 관점은 루카치의 영향이었다. 그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소외'(alienation)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 질서 속에서 문학의 변증법적 역할을 설명한다. 노동의 소외가 일반화되고 가치의 단절이 보편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학은 한편으로 계급의 적대 관계를 예리하게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순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초월의 양상을 드러낸다는 것이 루카치의 주장이었다. 루카치를 계승한 문학사회학은 한 시대의 사회적 구조와 문학작품의 내적 구조 간의 상동성(homologie)을 밝혀내는 것이 문학비평가의 임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문학사회학이란 한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그 시대의 지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현실 가운데서 어떤 구조화된 사회적 단위, 즉 작품의 내적 구조와 상동성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단위를 찾아내어 규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숨은 신』에서 골드만은 17세기 프랑스의 얀센주의(Jansénisme)와 범복귀족 간의 상동성 속에서 라신의 작품을 설명한다.²²⁾ 골드만에 따르면, 범복귀족들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권력과 충돌하지만, 그들의 성장 자체가 기존 권력을 담보로 한 것이기에 근본 구조의 전복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

22) Lucien Goldmann, *Le Dieu caché*(Paris, Gallimard, 1955). 골드만의 저작은 17세기 프랑스 사회구조의 모순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비극적 세계관의 구현으로서 파스칼의 광세와 라신의 희곡들을 설명하고 있다. 라신에 관한 부분은 이 책의 마지막 장, 제4부 Racine pp.347~446을 참조.

한 시대적 분위기는 문학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라신의 극 구조 속에서 '비극적 세계관'으로 표출된다. 비극적 세계관이란 인간 존재가 부딪히고 있는 모순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루카치의 '세계관'(혹은 계급의식) 개념을 매개로 사회와 문학 사이의 구조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골드만의 연구에 대해 바르트는 환원주의적 비평이라고 비판한다. 문학사회학은 닭은꼴 찾아내기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소르본의 고전적인 문학비평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개인적 경험의 반영인가, 아니면 집단적 경험의 반영인가라는 차이만 가질 뿐이다. 바르트는 이들의 작업을 모두 "의미비평"이라는 이름으로 묶고 있다.

문학 작품이 산물이라는 관념 대신에 기호라는 관념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작품은 작품 자체를 넘어선 그 어떤 것의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문학비평은 의미(signification)를 해독하는 작업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니피에(signifié)를 발견하는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미비평이라 불릴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이론을 내놓은 비평가는 역사적 시니피에를 대상으로 하는 L. 골드만이다 [...] 의미비평이란 작품을 어떤 원인의 효과로서가 아니라, 어떤 시니피에의 시니피앙(signifiant)으로 개방시키려는 운동을 말한다.²³⁾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의 시니피앙에는 언제나 여러 개의 해독 가능한 시니피에들이 존재한다. 즉 기호들은 언제나 여러 개의 의미와 연결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독자의 선택, 자의적인 해석이 판단의 준거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비평이 항상 귀납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항상 환원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구조의 상

23) Roland Barthes, *Sur Racine*, p.157. 시니피앙(signifiant), 시니피에(signifié)는 소쉬르의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시니피앙은 표현하는 것, 시니피에는 표현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하나의 언어가 표현하는 개념들은 언어의 전체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하나의 개념은 단어와 표현되는 대상 사이의 어떤 내적인 관련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청각 이미지, 즉 시니피앙의 체계 안에서 그것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동성? 사회와 작품의 동질성? 과연 라신은 정치적 좌절을 겪은 사회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그의 시각은 이러한 좌절만을 재생산하고 있는가? 하지만 의미비평가들은 작품이 작가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것, 혹은 작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작가가 인식하지 못하는, 의도의 전도된 기호일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들은 항상 작가가 자신을 액면 그대로 베끼는 것 말고는 다른 권한이 없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바르트가 보기에 보다 생산적인 방식은 시니피에보다는 시니피앙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문학을 “대상들과 규칙들의 총체, 기법들과 작품들의 총체”로 바라보고, 따라서 의미 해독 보다는 기호들의 체계 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²⁴⁾

이러한 바르트의 관점은 페브르가 『16세기 무신앙의 문제』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페브르는 라블레의 저서에 내재된 작가의 주관적 의도를 해독하려 하기보다는 16세기의 철학, 과학, 수학, 문학 등의 분석을 통해 한 시대의 심성적 체계를 밝히고 그 속에 작가와 저서를 위치시켰었다. 페브르의 연구 방식은 바르트의 기호학으로 연결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텍스트를 말하기/쓰기의 제도화된 양식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기능하는 규칙과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구성적으로’ 추적하려는 푸코의 담론 분석으로 이어진다.

V. 구조주의의 전개

『아날』지에 발표된 바르트의 논문은 1963년 『라신에 관하여』라는 하나의 저서에 묶여 출판된다. 이 책의 출간은 당시 프랑스 고전 문학 이론의 대가로서 라신 전문가였던 레이몽 피카르(Raymond Picard)와의 기나긴 논쟁으로 이어진다. “문학의 역사를 서술하려면 라신이라는 개인을 단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르트의 저서는 대중적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고전적인 문학비평

24) Roland Barthes, 같은 책, p.166.

의 관점에서 볼 때 위대한 극작가 라신이 프랑스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지위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고전적인 문학이론가들은 라신을 수호하고 프랑스의 문학적 전통을 옹호하기 위해 일제히 바르트를 공격하였다. 그 선봉에 소르본의 교수이며 『라신 전집』의 편집자였던 피카르가 있었다. 그는 1965년에 『신비평 혹은 새로운 협잡』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책을 출간한다. 무엇보다 피카르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은 바르트가 라신의 희곡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은밀한 성적 관념을 지나치게 부각시킨다는 점이었다. 피카르는 “라신의 인물들이 D. H. 로렌스의 인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²⁵⁾ 더 나아가 그는 바르트가 라신의 전문가도 아니며, 따라서 라신을 언급할 권리가 없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피카르의 책에서 바르트는 철학적, 정신분석학적, 생물학적 용어들을 나열하며 사이비 지식을 전파하는 협잡꾼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렇지만 제목만큼이나 자극적인 내용과 주장들로 가득 찬 피카르의 책은 상업적인 대중매체의 관심을 오히려 구조주의 문학비평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고전적인 문학비평을 대표하는 피카르의 비판은 당시까지 프랑스 문학비평계의 주변부에 위치하던 바르트에게 신비평의 대표자로 떠오르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해 준 것이다.²⁶⁾

물론 피카르의 비판이 야기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1960년대 프랑스 인문학계는 새로운 움직임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인문학의 중심지였던 소르본은 전통과 권위만을 고집하며 노쇠해 있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학문적 조류들을 거부하고 있었다.²⁷⁾ 20세기 프랑스가 세계 인문학계를 지배하도록 만들었던 저명한 학자들 - 페브르, 브로델, 레비-스트로스,

25) Raymond Picard, *Nouvelle critique ou nouvelle imposture*(Paris, J.-J. Pauvert, 1965), p.30.

26) 바르트와 피카르의 논쟁에 대해서는 François Dosse, *Histoire de la structuralisme I. Le champ du signe* (Paris, La Découverte, 1992), pp.264~270을 참조.

27) 1960년대 프랑스 인문학계와 소르본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원, 「68년 5월과 파리대학」 『대학의 역사와 문화』 1 (서울, 대학사학회, 2004, 12), pp.133~146을 참조.

바르트, 라캉, 푸코, 루이 알튀세(Louis Althusser),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질 들뢰즈(Gilles Deleuze),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폴 리쾨르(Paul Ricoeur),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장 보드리아르(Jean Baudrillard), 장-프랑수아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이 수없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소르본의 교수는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프랑스 학계가 얼마만큼 보수적이며 폐쇄적이었는지를 말해준다. 예일대학에서 데리다에 대한 강좌가 만들어지고, 버클리대학에서 푸코를 초빙하고, 뉴욕주립대학에서 브로델의 이름을 붙인 연구소가 만들어졌어도 정작 소르본에서는 이들에게 강의의 기회를 준 적이 없었다. 소르본의 시간표는 20세기에도 여전히 19세기의 강좌들로 채워져 있었다. 아날의 역사가들은 소르본의 문을 두드리기를 포기하고 결국 록펠러 재단의 기금을 받아 대학원 중심의 연구 기관인 고등연구원(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 제6국을 세우게 된다. 이 곳에는 프랑스 인문학의 전통적인 주류를 비판하는 학자들, 즉 아날의 역사가들과 구조주의의 신봉자들이 공존하고 있었다.²⁸⁾

고전적인 문학비평가들이 보여주는 아카데미한 담론의 폐쇄성에 대해 바르트는 실증주의적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정치적, 지적 보수주의라고 비난하였다. 이 논쟁에 당대의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가담하였고, 피카르를 옹호하는 전통적인 강단 이론가들과 바르트를 지지하는 구조주의의 옹호자들로 나뉘어 격렬한 충돌이 계속되었다. 196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는 이 논쟁의 과정에서 바르트는 구조주의의 부상과 더불어 그 핵심인물로 각인되었고, 그가 소속된 고등연구원 제6국은 진보적인 좌파 사상과 정치의 중심지로 인식된다.

28) 고등연구원 제6국은 아날 역사가들의 본거지인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의 전신이다. 고등연구원이 설립되는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용중, 『아날학파』, pp.131~136을 참조.

VI. 맺음말

이제까지 사학사가들은 아날과 구조주의의 관계를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에 대한 브로델의 비판을 통해 설명해 왔다. 브로델과 레비-스트로스가 갈등적이었던 것처럼 아날과 구조주의 역시 대립적인 관계로 간주되었고, 20세기 프랑스 인문학을 대표하는 두 흐름의 화해는 1970년대에 들어서야 아날 3세대 역사가들의 역사인류학을 매개로 가능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렇지만 구조주의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성향과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레비-스트로스가 구조주의 전체를 대변할 수 없을뿐더러 구조주의 인류학이 구조주의 사상 전반을 아우를 수도 없다.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레비-스트로스, 푸코, 바르트, 라캉 등은 각기 상이한 모습과 지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를 잘 짜여진 엄격한 체계로 정의하려 했던 반면, 바르트에게 구조주의는 하나의 운동(mouvement)일 뿐이었다. 이러한 구조주의 내부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아날과 구조주의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은 페브르의 문학사회학이 바르트의 구조주의 문학비평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면서 아날과 구조주의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보았다. 아날과 구조주의는 브로델과 레비-스트로스의 경우처럼 갈등적인 관계로만 엮어 있었던 것은 아니며, 페브르와 바르트가 보여주듯이 이론적으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르트가 제시한 구조주의 문학비평의 이론적 토대 구성에 페브르의 역사학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아날과 구조주의가 이론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구조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이 태동할 때 이미 그 한 부분에서 아날의 역사학이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브로델과 레비-스트로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페브르와 바르트 역시

아날과 구조주의의 관계 전부를 설명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주의는 다양한 조류들의 복합체이며, 레비-스트로스건 바르트건 이들은 모두 구조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단지 한 축만을 이루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구조주의만의 모습이 아니다. 아날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날의 창시자인 블로크와 페브르, 그들의 후계자 브로텔, 그리고 이후의 많은 역사가들, 이들은 모두 아날이라는 하나의 이름 하에서 서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엉켜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에서 살펴본 페브르와 바르트는 아날과 구조주의의 관계에서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20세기 프랑스 인문학을 대표하는 아날과 구조주의라는 거대한 두 흐름이 서로 교차하고 갈등하며 전개해나간 기나긴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사학사가들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주제어 : 아날(Annales), 구조주의(Structuralism), 루시앙 페브르(Lucien Febvre),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문학사회사(Social history of literature),
구조주의 문학비평(Structuralist critique)

투고일(05. 10. 31), 심사시작일(05. 11. 16), 심사종료일(06. 01. 30)

(Abstract)

Annales and Structuralism: Consider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Lucien Febvre and Roland Barthes

Koh, Won

Historians of historiography explained that the relation between Annales and french structuralism was hostile. This assertion was based on Fernand Braudel's critique of Claude Lévi-Strauss. However, there were many-sided figures and streams in the structuralism. Representatives of structuralism like Claude Lévi-Strauss, Michel Foucault, Jacques Lacan or Roland Barthes showed diversity of styles and tastes. Claude Lévi-Strauss, for example, defined the structuralism as a hard and fast system, but Roland Barthes regards it as a movement. If we don't consider multiplicities in the structuralism, we can't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Annales and structuralism.

The relation between Lucien Febvre and Roland Barthes show a different aspect from that of Fernand Braudel and Claude Lévi-Strauss. Roland Barthes was connected theoretically with Lucien Febvre. This historian's social history of literature has an enormous effect on the theory of critique of Roland Barthes. The work of Lucien Febvre, *Le problème de l'incroyance au XVI^e siècle: La religion de Rabelais* (1942), provided some base of Roland Barthes's structuralist theory. The structuralism of Roland Barthes was not hostile to the history of Annales, which means another aspect of relation between Annales and structuralism, in other words some aspect of their close relation.